

안방 할인 공세로 소비자 구매욕 자극

‘사고 싶은 책’ 보다 ‘출판사가 팔고자 하는 책’ 들
독자 · 어린이들, ‘좋은 책’ 고르는 눈 키워야



글_이명옥 어린이도서연구회 정책국장

어린이 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시작한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과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어린이책을 읽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책을 우리 아이들과 공부방 아이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어린이 책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은 한 번에 안다. 어떤 게 좋은 책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낫을 놓고, 쪽 빠져들고, 재미있어 하는 책은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책은 단순히 글자를 모아놓은 것이거나,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아니다. 좋은 책에 있는 글자와 그림은 아이들 마음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세상이 된다. 좋은 책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편리하게 싼 값으로 책을 살 수 있는 세상

내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책이 그리 많지 않았다. 계몽사에서 나오는 세계명작 동화가 전부였다. 이것도 동네에 한두 집 있을까 말까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나나 둘만 낳는 세태이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이며 장난감이 집집마다 넘쳐난다. 책을 사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주로 방문판매업자가 권하는 대로 샀다.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적었으니 말쑥씨 좋은 방문판매업자가 골라주면 그게 바로 좋은 책이 됐다. 그러다가 책방에 직접 나가서 책을 골랐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된 책을 고르기 쉬웠다.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책 소개한 것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걸 고르기도 했다.

요즘은 어떤가? 굳이 집에 방문판매업자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또 번거롭게 차타고 나가지 않아도 집안에 편하게 앉아서 책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컴퓨터만 켜면 언제든지 인터넷서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텔레비전 홈쇼핑에서도 책을 판다. 대형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사다가도 문득 생각날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책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책방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장바구니 한 쪽에도 넣어올 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새로운 판매 채널 vs 특정 장르 편중 할인’ 엇갈린 평가

우리 집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다. “책방 주인이 되는 게 꿈이고 책방을 동네 사랑방처럼 꾸미고 싶었다”는 그 주인 말처럼,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을 보면 가게 주인이 그저 문방구 한 구석에 구색 맞춰 책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고는 안 보인다. 그래서 나도 그 가게에 자주 간다. 아이들 학교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나 문제집을 살 때도 있고, 그림책이며 동화책이며 큰 아이들이 읽을 책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동네에서 하는 책방이다 보니 이런 내 필요를 제대로 다 못 채워줄 때가 많다. 주문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갖다 놓지만, 내가 필요할 때 편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해서 자꾸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게 된다.

1990년대 이후로 어린이 책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출판사마다 너도 나도 어린이 책 출판에 발벗고 나섰다. 또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술시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어린이 책과 청소년 책 출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런 교육 현실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서 아동 서적과 문학 전집류,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읽을 책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살 책을 함께 고르는 일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사는 일이 아니다. 책 한 권 한 권을 고르면서 기울이고 들인 마음과 시간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 그 책을 더욱 특별나게 만들어줬다.

한다. 이런 현상을 두고 새로운 판매 채널의 형성으로 시장이 확대됐다는 긍정적 얘기와 특정 장르에 편중된 할인 공세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부정적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 경제적으로도 이익, '그러나 뭔가 찝찝'

확실히 요즘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여 책을 싸게 파는 것을 보면, '저래도 되나? 싶을 때가 많다. 얼핏 봤을 때는 이 기회를 놓치고 안 사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 같아 마음까지 뒤통수하게 만든다. 하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기분이 언짢아진다. 왜 그럴까? 그 책들은 내가 사고 싶은 책이라기보다는 출판사들이 팔고 싶어 하는 책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내놓았겠지만 어린이 책의 경우 대부분 상(賞)받은 책이거나 어디 어디 단체에서 권장하는 책이기 쉽다. 말하자면 '잘나가는 책'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 잘나가는 책이라는 게, 나로서 '잘 팔릴 것 같은 책'이라는 소리로 들린다. 책을 사는 사람이 충분히 자유롭게 고르도록 기다려주지 않고, 특정한 책 위주로 할인 이벤트를 벌여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이 모든 게 눈에 거슬리지만 이제는 무턱대고 이 흐름을 막을 수도 없는 것 같다.

최근에 인터넷서점과 대형마트,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체제가 동네 책방을 문닫게 하고 출판의 질을 떨어뜨린 측면도 있지만, 이런 유통체제에는 편리함이나 경제적 이익이라는 매력도 분명 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책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가 찝찝하다. 왜 그럴까? 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책 고르며 들인 정성과 시간, 책의 가치 높여

우리 집 아이들과 재미있게 읽은 《원숭이 꽃신》이라는 동화에 보면, 오소리란 놈이 원숭이에게 꽃신을 삼아 바치는 바람에 본래 맨발로 살던 원숭이가 그 꽃신에 걸들여져서 그 꽃신을 신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득 내가, 스스로 잘나서 엄청 약하게 사는 줄로만 아는 원숭이처럼 느껴지니 참으로 씁쓸하다. 그래서 책

에 대해서, 책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책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책이 진정 우리에게 가치로울 수 있는 것은 책의 종류나 모양, 가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서 온다는 것이다. 책은 어떤 식으로든 지은이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담기 마련이다. 책 읽는 사람 또한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감동은 살다가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 앞에 잔하고 나타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될 그 무엇이다. 이런 것 이야말로 책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다.

지금은 중·고등학생으로 훌쩍 자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으로 시내 책방에 책을 사러 다녔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립다. 아이들이 읽을 책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살 책을 함께 고르는 일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사는 일이 아니었다. 책 한 권 한 권을 고르면서 기울이고 들인 마음과 시간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다시 살아나 그 책을 더욱 특별나게 만들어줬다.

스스로 좋은 책 기준 세우고 찾아야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책을 쉽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싸고 쉽게 책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아쉽다. 편리함과 경제적 이유라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챙기느라 무언가를 놓쳤을 것만 같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뽐혀진 좋은 책은 아마도 좋은 책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렇게 남이 가르쳐준 대로만 따라가면 나 스스로 좋은 책의 기준을 세우고 찾는 것을 언제 어디에서 배우나. 책을 읽는다는 건, 책에 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책을 고르는 일부러 책을 읽는 행위, 그 책이 가져다 준 감동, 그 감동이 내 안에 만든 든든한 세상 하나까지, 이 모든 게 아닐까. '책 한 권이 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책 한 권이 지니는 가치와 영향을 그리 만만히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